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Chungbukdo Council of Social Welfare
신문광고문의 : 043)234-0840~2
FAX : 043)238-0840 E-mail : cpcsww@chol.com
충북 청주시 흥덕구 광단로 87, 302호

충북사회복지
CHUNGBUK SOCIAL WELFARE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충북하나센터
복한이탈주민을 위한 지역적응센터입니다.
TEL : 043)238-0840~1 FAX : 043)238-0842
E-mail : cpcsww@chol.com
충북 청주시 흥덕구 광단로 87, 302호

제 207호 대표전화 043)234-0840 2016년 7월 18일 <월요일>

충북 아녀소사이어티 11호 김해림 골퍼
"첫 우승의 기쁨 이웃과 나눌게요"

지난 5월 KLPGA대회서 12위전 130기만에 우승 후 상금 9070만원 전액 기탁

현재까지 2억여원 기부 봉사 활동도 꾸준히 펼쳐

기부천사로 알려진 여자 프로골퍼 김해림(27) 선수가 우승상금 전액을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충북 아녀소사이어티 11호 김해림 프로골퍼가 7월 2일, 음성 렌스클럽도그에서 지난 5월 열린 KLPGA 교촌 허니 레이디스오픈에서 129번 130기 만에 우승을 차지하며 받은 우승상금 1억원에서 세금을 공제한 전액 9천7십만원을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원장 이명식)에 기탁했다.

첫 우승 상금을 전액 기부하겠다고 선언했던 김해림 선수는 이날 성금 전달을 통해 그 약속을 지켰다. 그 누구에게도 쉽지 않았을 약속을 지킨 김해림 선수는 젊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했고 큰 귀감이 됐다.

이날 성금 전달식에는 충북 아녀 소사이어티 클럽 회원들이 함께 참석해 축하해주었다. 성금 전달식이 끝나고 김해림 선수와 함께 골퍼 김해림 선수의 친구이자 이번 대회 캐디를 맡았던 이 선수의 남편 김 씨도 자리를 함께 하면서 10억원을 기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더욱 성실히 최선을 다해 기부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

김해림 선수는 대년 상금의 10%를 기부하고 있으며, 2013년 개인 고액기보자 모임인 아녀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 현재까지 약 2억원을 기부했다. 또한 편클럽 회원들과 함께 기부와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으며 김 선수는 버디 1개를 잡을 때마다 편클럽 회원 1명당 1원씩의 모아 기부하는 활동도 펼쳐오고 있다.

김해림 선수는 "이번 우승의 10%를 기부하고 있으며, 2013년 개인 고액기보자 모임인 아녀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 현재까지 약 2억원을 기부했다. 또한 편클럽 회원들과 함께 기부와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으며 김 선수는 버디 1개를 잡을 때마다 편클럽 회원 1명당 1원씩의 모아 기부하는 활동도 펼쳐오고 있다.

충북, 지역복지 모델 개발방향 제시

6월 21일 '85회 충북사회복지포럼'이 열린 가운데 심의보 충북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질문을 받고 있다.

충북사회복지협의회, 85회 충북사회복지포럼 열고 유면동 단위 민관협력 · 청주시 복지 허브화 등 논의

충북사회복지협의회(회장 심의보, 이하 충북협의회)가 21일(화) 민관협력지역복지모델 개발을 위한 제 85회 충북사회복지포럼 을 진행했다.

이번 포럼은 민관협력 지역복지모델 개발과제를에서 성장한다 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도 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단당자, 대학생 및 공무원 등 약 100여명이 참가하여 열띤 토론과 의견을 공유하였다.

김기홍박사(숭민인문로 부장대학)의 복지이용 네트워크의 구상과 실천,가치에는,을 중심으로 라는 기조강연과 유용식교수(세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신옥 상임이사(충북대학교 사회복지대학)의 사회복지현장 과 외래교수가 라라 김연옥단위 민관협력 현황 연구 , 청주시 복지허브화 민관협력 사례 , 복지이용을 위한 음면동 민관 협력방안 이라는 주제로 발항을 제시했다.

종합토론에는 유종희 회장(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과 김관성 대표이사(충북지역복지개발)가 참여한다. 최장은 심의보회장(충북사회복지협의회)이 맡아 좌석한 청중들과 토론을 진행하였다.

사회복지협의회는 매 년 변화하는 사회복지제도다입, 사회복지정책 변화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사회복지포럼을 통해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기초지표를 마련하고 있다.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심의보회장은 민관협력이 무엇보다 소중하다 며 민관협력을 통해 지역성이 고려된 마을을 기반으로 충북의 지역복지모델을 개발하는데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및 모임은 적극적인 관심과 조직화가 필요하다 고 하였다.

"아동학대 예방 위해선 조기발견 신고 중요"

충북도청 소회의실에서 광역기관과 민간단체 대표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민간단체 협조 설명회 가 열렸다.

충청북도, 민간단체 협조 설명회

경찰청 번호 사회 등 7개기관 참석

충청북도는 도교육청, 청주지방법원, 청주지방검찰청, 충북지방경찰청, 충북보호사회,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 등 7개 광역기관과 청원 6월 10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충북 이 통장협의회, 충북 새마을회, 충북 새마을부녀회, 충북 주민자치연합회, 충북자율방범연합회, 충북 어린이집연합회, 충북 지역아동센터연합회, 충북사회복지협의회 등 8개 민간단체 대표를 대상으로 아동이 행복한 충북 조성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민간단체 협조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민간단체 대표들에게 충북 아동학대예방 종합대책과 기관별 아동학대방지 실행방 비롯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조기발견 신고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에 앞서 충청북도는 전국최초로 8개 광역기관이 참여하는 아동 폭력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상호간 신뢰와 성실을 바탕으로 아동들에게 행복한 세상을 열어주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긴밀한 협력을 펼치고 있다.

충청북도는 민간단체 협조 설명회에 이어 오는 7월 중으로 시군별로 이 날 개최, 새마을부녀회원, 어린이집원장, 자율방범연합회원 등 지역 단위 자원을 활용한 SOS 아동신고 지킴이 를 구성해 아동학대예방활동, 아동학대 의심사례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및 사후 모니터링 기능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65세 이상 틀니 ·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7월 1일부터 결핵 진료비 면제 제외질환 개 분만 진료비 인하

7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에 대한 틀니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결핵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제왕절개 분만 시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 등이 시행됐다.

이번에 확대되는 건강보험 보장성의 주요 내용은 먼저 틀니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이 만 기준 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따라나 만 65세 이상으로 임부 치아를 지니고 있는 완전무치와 제외어트리의 경우 어금니와 앞니 중 2개는 정해진 비용의 50%만을 부담하면 된다.

그 동안은 틀니 또는 임플란트를 시술할 경우 평균 약 140-200만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급여 확대로 약 5.5~6만원만 부담하게 돼 의료비 부담이 약 60% 감소하게 된다.

이번 연령 확대로 올해 약 11-13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약 960-11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소요 될 예정이다.

결핵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에서 본인부담 10%가 전액 면제 된다. 결핵 치료 중인 환자는 치료기간 동안 본인부담이 면제되고 연간 7만 3000원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아울러 지출금 해소를 위해 본면하여야 신모에게 임신, 출산 진료비 3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현행 50만원의 지원금이 70만원으로 늘어나며 추가 지원은 본년한이이 37개 지역의 산모들에게만 지급된다. 해당 지역의 주민등록자를 기준으로 주민등록 기간이 지금 신청일가지 계속해 3개 이상이어야 신청 대상자에 해당된다.

제왕절개 분만 시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도 인하된다.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0분의 5로 본인부담률을 인하하며 통증 완화를 위해 실시되는 통증자가조절법 도 본인부담이 기존 7만 8000원에서 3000원으로 경감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12년 7월 완전됐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매년 단계적 보장성 확대를 통해 6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의 틀니 입 플란트 시 술을 시 행됐했 의료비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어 의미가 있다. 고 하면서, 또한, 이번 보장성 확대로 결핵 환자들이 또 경 제 없이 적극적으로 결핵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임산부들이 임신 출산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 줄수 진료비 환급을 조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복지용구 관련 부정 국민들이 직접 신고

홈피 우편 팩스접수 센터 마련

복지용구와 관련된 부조리 사항과 관련해 국민들이 직접 신고가 가능하도록 복지용구 신고센터 가 개설됐다.

7월 4일부터 운영된 복지용구 신고센터 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생활이나 신체활동지원에 필요한 수동휠체어, 목욕의자 등 복지용구와 관련해 부조리한 사항이 있을 시 국민들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신고사항은 장기요양수급자가 복지용구 제품을 고시가격 보다 높게 구입한 경우 복지 용 구 급여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고시가격 보다 낮게 구입한 경우 복지 용 구 급 여 입합 때 본인부담금을 지불하지 않 은(공짜 구입) 경우 복지 용 구 를 요청하지 않았는데 택배 등으로 설 에 배달된 경우에 해당한다.

"노인 의료·복지 한번에"

보건사회연구회 국제심포지엄 장기적 정책 한계점 의견 나와

6월 29일 심포지엄에 참석한 조항석 원장(가운데). 이재용 복지부 과장(오른쪽)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6월 29일 연세대 의료원 에비슨의생명연구센터 유일한 홀에서 고령사회의 노인 건강과 의료서비스에 관한 국제심포지엄 을 개최했다.

이번 국제 심포지엄은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체계를 위한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각 국가의 노인의료 관련 정책들과 의료서비스 제도 체계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 설정을 위해 마내 오 된문기월요복지 건강한 이건용 수렴했다. 특히 심포지엄에서는 이번 보건복지부의 노인의료서비스 개편과 관련한 의견이 나와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조항석 연세대 보건행정학 원장은 현재 운영 중인 시설입퇴의 연계성을 에 도 불어 운영의 중요함을 강조했고 이어 현 노인장기요양 제도와 관련 해 이번에 도 여러 제도가 나와 이번 규제를 뭘림시 정립 무슨다 내 현 노인장기요양 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호소했다.

이어 제도와 관련해서 단기적인 시각을 대표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인, 의료, 복지 이러한 서비스와 관련한 전반적인 케어가 필요한 사업이 향후 국제 표준이 되기 위해 중요 시됐. 그렇지만 가입자 평부 등 동년고용 증가율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들 등을 갖춰 (제종청복지지방기업지종관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정심 충북도 원년지원과장은 원년 근무자를 채용한 우수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도내 취업이 어려운 청년여성 양질의 정규직 취업 기회 확대하겠다 조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밝혔다.

공모전 결과발표는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 2명 등 총 5명을 선정해 9월경 시상할 예정이며, 공모전에서 선정된 이이디어는 시업화 가능여부에 대한 검토 후 자체는 신규 사업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서 회사하스에 대한 도민의 관심 유도와 수요자 시각에서 서비스를 발굴 시 활한 으로 서비 도민의 실이 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북도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지원

도내 우수 중소기업 대상 시업비 최대 3000만원까지

충북도는 올해부터 청년 근로자 채용을 위해 노력한 도내 우수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지원시업 을 실시한다.

30일 도에 따르면 이번 시업은 충북도 주관으로 광역도 중 최초로 시행하는 시업으로 도내 중소기업 중 정규직 청년 근로자 채용실적, 고용유지률 및 청년일자리 환충 노력도 등을 평가항목으로 전문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지원대상은 충북도에 소재하고 2년 이상 장상 기업 중인 300인 미만 중소기업 중 최근 1년간 고용 증가율 5% 이상이면서, 청구직 청년 고용인원 5명 이상인 중소기업이다.

도는 6월 30일부터 3주간 지역요건이 되는 기업대표 공개모집한 후 평가를 거쳐 시 군 별 1개 기업씩 총 11개 기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11개 기업에게는 기업 내 근로자들이 힘요로 하는 건강증진센터, 체육시설 등 고용환경개선에 필요한 사업비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시업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7월 19까지 신청서와 시업지원확증 서 사본,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등 동년고용 증가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갖춰 (제종청복지지방기업지종관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정심 충북도 원년지원과장은 원년 근로자를 채용한 우수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도내 취업이 어려운 청년여성 양질의 정규직 취업 기회 확대하겠다 조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밝혔다.

충북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시업 아이디어 공 모 8월 12일까지

충청북도는 2016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시업 도민 아이디어 공모전 을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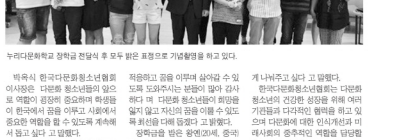
이번 공모전은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정책화하고자 실시하게 되었다.

지역사회서비스는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 대상자에게 바우처이용권을 발급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바우처 시업이다. 현재 도내에는 노령층 취업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재활서비스 등 노인, 장애인, 아동, 가족 분야에 20여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참가신청은 충북도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접수기간은 6월 13일부터 8월 12일까지 충청북도 및 충북지역사회서비스 지원 단 홈페이지 (www.chcsw.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로 응모하면 된다.

아낌없는 사랑에 싹트는 '꿈'

한국다문화청소년 누리다문화학교 장학금



누리다문화학교 장학금 전달식 후 모두 받은 표정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단복지법인 한국다문화청소년연합회(이사장 김정화)는 하반기에 장학금을 지원한다.

(사)한국다문화청소년연합회는 다문화청소년의 여망 김정화 복지 원, 청소년의 다문화 인성 교육을 지원하는 단체이다.

이번 장학금 지원은 언어적, 경제적 문제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공부 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다문화 청소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누리다문화학교에서는 총 3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게 됐다.

박옥식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 회장은 다문화 청소년들이 모두 인성 교육을 지원하는 단체이다.

이번 장학금 지원은 언어적, 경제적 문제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공부 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다문화 청소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누리다문화학교에서는 총 3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게 됐다.

장학금을 받은 윤연(고1)씨, 중국 하얼빈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오늘 받은 마첸쉬을 다른 사람들에 적용하고 싶다고 말했다.

장학금을 받은 윤연(고1)씨, 중국 하얼빈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오늘 받은 마첸쉬을 다른 사람들에 적용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선영 대표는 다문화 청소년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옥식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 회장은 다문화 청소년들이 모두 인성 교육을 지원하는 단체이다.

이번 장학금 지원은 언어적, 경제적 문제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공부 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다문화 청소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누리다문화학교에서는 총 3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게 됐다.

장학금을 받은 윤연(고1)씨, 중국 하얼빈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오늘 받은 마첸쉬을 다른 사람들에 적용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선영 대표는 다문화 청소년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고 싶다고 말했다.

옥천 청소년 흡연 · 음주율 양호

군보건소 중 · 고등학생 대상 조사… 전국 평균보다 낮아

옥천군보건소가 지난 4월 관내 8개 중 고등학생 설문 대상으로 실시한 옥천군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충북도에서 지역 내 모든 중 고 등학교 흡연율을 대상으로 건강행태조사를 실시한 것은 옥천군이 처음이다.

건강행태조사 결과 흡연 흡연율은 5.1%(전국 7.8%), 현재 음주율 15.4%(전국 16.7%), 스트레스인지율 31.8%(전국 35.4%), 우울감경험율 21.2%(전국 23.6%), 점심식사 후 양치질 시행률은 양호한 상태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체 노인 인구의 28% 가 치매로 진행되기 전조 단계인경도인지장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치매고위험군에 프심에게 인지력습활동은 30에 다양한 자극을 주어 지속적으로 보다 인지장애를 예방하고 치매의 발병 위험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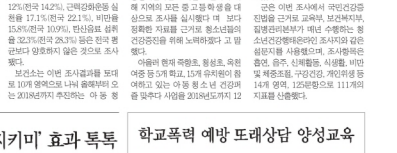
이 사업에 참여중인 기억지키미 및 수예자 어르신이 만족도 및 호응도 높게 나타났다.

기억지키미의 활동중인 주공이 답, 기분, 어르신은 사업에 참여하면서 나도 어르신과 같이 공부하면 서 보다 건강해 지는 기분이라며, 보다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고 이야기 하셨다.

사업 수예 어르신은 나이를 감춰 래어, 30세! 어르신은 처음 에는 꺼림도 포포고 시작했는데, 이런 기회 아니면 언제 글씨도 써보고 책을 보며 공부 하겠어 라며 건강이 회복될 때 까지 계속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다.

치매예방 '기억지키미' 효과 톡톡

시범사업으로 25명 선발해 인지재활 프로그램 등 진행



수예자 어르신들이 수예공예작품전시회, 수업시시연활동 상호활동력에 노인일지리사의 일폰으로 기억지키미 시범사업을 금년 4월 처음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만60세이상의 고학력 건강한 어르신을 기억지키미로 선정, 치매고위험군어에이상 기정을 방문하여 1:1 인지재활 프로그램(동이집기, 단어기억, 치매예방체조 등)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수예자 어르신 만족도 조사한 기억지키미 25명을 선정, 월평균기억 100가구에서 왕성하게 활동중에 있다.

특히, 충북광역치매센터와 우암시니어클럽간 상호협력을 통해 공역치매센터에서는 치매보수교육, 인지재활 핵자보급, 모니터링 등 사업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있으며, 우암시니어클럽에서는 참여어르신 관리 및 보수활 30시간 활동, 월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 또래상담 양성교육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원장 박재성)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6월 30일 청주시문화시민회관 3층 나눔마당실에서 충북 도내 또래상담 지도교사와 고등학 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 등을 대상으로 담당자 등 40명을 대상으로 2016년 학교폭력 예방 또래상담 지도 양성교육을 개최했다.

또래상담사업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도내 각 학교에 또래상담자를 양성하여, 학내 친구들에 대한 상담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학교폭력 조기발견과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또래상담 전체 구성소개, 또래상담 대화기술 경청, 공감화이해 , 또래상담 대화기술 어기역지, 원무지개 등으로 실시됐다.

교육을 수료한 지도교사들은 각 학교에서 또래상담자에게 기본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충북청소년진흥원장은 한 지역 내 원장은 학교폭력 예방 또래상담 지도자 교육을 통해 충북 도내 또래상담 사업이 활성화되어 감추어 숨겨져있는 학교폭력이 예방되길 바란다 고 말 했다.

충북사회복지신문

발행인 심 의 보 편집위원장 박 상 준 편집고문 권 주 일 **간 춘 길**

(2856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층

전화 : 043-234-0840 FAX : 043-234-0849

E-mail : cpcsww@cnl.com 홈페이지 : www.cwn.or.kr

6월 푸드뱅크 · 푸드마켓 식품기부자 명단

- 푸드뱅크는 소외계층을 위한 식품 나눔 은행입니다 -

◆ 충북장애푸드뱅크
(주)에스앤투스, C.J.신선 진천센터, GS리테일 발안물류센터, 김치나라, 롯데칠성 경쟁센터, C.J.up 제품센터, (사)우원빈홈센터, C.J.up 양지센터, 대상 용인저온센터,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 괴산군푸드뱅크
불무원, 괴산참파농산, 두레라드리셋, 파리바게트괴산점, 파리바게트괴산점, 파리보이에이리, 매크로홈쇼핑, 신선나눔, 신선나눔, 은식품, 진미식품, 제조장각국, 기아오토라, 장국희

◆ 구세군푸드뱅크
주식회사 사이스, 두레라드 금천장자점, 파리바게트 분평점, 한솔 제2동장, 궁전떡집, 금관할미마트, 해산수산, 두레라드 금천장자점, 진천SN푸드, 음성CJ, 음성(주)조인, 충주김치나라, 제천푸른촌, 롯데칠성, 일죽청정원, 제천씨알푸드, CJ 진천, 단양(주)청풍, 단양 두승식품, 서울우유 단양대리점, 삐리버거 단양대리점,

◆ 새양푸드뱅크
지갑저, 오창홈마트, 전문푸드마, 새영고회, 김선기영소장, (주)서연, (주)산수아, 파리바게트 방죽점, 파리바게트 호수점, 두레라드 산단지점, 두레라드 한라점, 홍은아침, 기분좋은살, 그린하우스과자점, 민속떡집, 철떡공방

◆ 영동나눔푸드뱅크
두레라드(김홍욱)

◆ 옥천군푸드뱅크
두레라드 열마트점, 장수촌, 맥우, 이가회로(외식지원)

◆ 음성군푸드뱅크
CJ푸드빌, 꽃피는아침마을, (주)이목원, 지연애맛주식회사, 청주본가왕갈비탕(금왕점), 단킨도너츠(금왕점), 파리바게트(삼성점), (주)아가자연,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대광푸드, 건국우유음성교육소, (주)불무원, (주)불무원 제일생면공장, (주)윤선식품, 김정호아리국밥

◆ 제천시푸드뱅크
건국유업, 두리베이게, 롯데제과 제천, 매스트, 박달제과푸드, 문유통, 씨알푸드, 오두기 제천점, 오두기, 태성김치, 푸른촌, 불일라인, 제천한과

◆ 증평군푸드뱅크
GS 슈퍼마켓 증평점, 조점기, 증평군청, 장월영농조합, 좋은아침 물량명, 파리바게트 내수점, 한그릇 식품, 계덕하루스, 단비상사, 단킨도너츠 증평점

◆ 진천군푸드뱅크
심진주스, 두레라드(심모범원점), 면사랑, 세진부로, 조인, 복우촌, 동원이천, 백합, 삼육두유, 파리바게트(덕산점)

◆ 진천나눔과기물푸드뱅크
파리바게트 진천장관점, 태닝 메디스 고, 신토식품, 윤지영, 김정식, 리브맛아두제한, 김수정, 댈러콘이월점 김용수, (주)에스앤투스, 지혜식품, 명가떡집(조운숙), CJ푸드빌, 해마로푸드서비스(주), 파스쿠찌, 행복한 떡집, 이삭식품(주), 명가떡집, 생가진식품

◆ 청주상당나눔푸드뱅크
참조은유통, 댈러스(분평동), 백설유통, 홈플러스익스플러스, 홍은아침(가경점), 파리바게트(개신점), 파리바게트(복대점), 바누아통, 좋은아침(복대점), 두레라드(비하계점점), 단킨도너츠(금천점), 참스토스, 홍월리(지월시지점), 이초롯에이리, 금관마트, 동청주오두기, 초이스에이리, 홀로리안, 좋은아침(상안점), 좋은아침(상화점), 파리바게트(가경대구), 정도너츠, 비로구운맛, 도담양초는밤맛, 청풍정월, 명성물류

◆ 청주제일푸드뱅크
청주제일교회, 한기장복지재단, (주)한백식품, 두레라드 을량점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 성공개최 힘보태요"

조직위, 자원봉사자 발대식
대학생 70명 등 총 200명 구성

2016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이 한 무예마스터십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성공을 함께 이끌어 갈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6월 21일 충북도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자원봉사자는 총 300명(일반 220명, 청년 80명)으로, 이중 대학생은 230명 일반인은 7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대회기간 중 관람객 안내 및 편의제공, 교통지원, 주차관리, 의료, 질서 등 각 분야에서 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활동을 펼치게 된다.

발대식에는 마스터십 조직위원장인 이시종 충청북도지사와 윤재길 청주시 부시장, 최창욱 충청북도총합자원봉사센터장, 자원봉사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행사로는 자원봉사단장(최정욱) 위촉장(이재민) 자원봉사자 퇴장에 대한 위촉식과 자원봉사자선서, 대회 성공기원을 위한 세리모니가 진행됐고 행사 참석 주요 인사들이 대회 성공의 발기점이 될 자원봉사자에게 따뜻한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자원봉사자는 친절과 웃음으로 관람객과 선수를 맞고, 밝은 마음자세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며 성공 대회개최에 일익을 담당하기로 다짐했다.

이어 성공기원을 위한 세리머니로는 수건을 활용한 성공기원 메시지 세션을 펼쳐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시종 도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우리 도가 세계 무예 성화를 점인하여 무예올림픽의 발원지가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자원봉사자가 힘을 합쳐 여사적인 무예올림픽 성공 개최의 주역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발대식 후에는 자원봉사자의 사명감 고취를 위한 무예마스터십 의의와 개요를 설명하고, 근무요령 및 운영계획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봉사단 운영을 위한 기본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또한 자원봉사자에게 대회 홍보를 위한 활동에도 박차를 가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 신청은 4월 에일부터 5월 13일까지 신청을 받고 사무한정과 면접 심사를 통해 총 300명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했다.

이시종 충북지사와 윤재길 청주부시장, 자원봉사자들이 성공기원 세리모니를 하고 있다.

대회 기간 동안 연인원 2,100여명(1일 300명)이 행사장 곳곳에서 셔틀과 현신의 자원봉사활동을 펼개하게 된다.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상해보험 가입과 유니폼 실비 등을 지급하고 대회 참여수준의 봉사실적 확인서를 발급한다.

도 자원봉사센터 최정욱 센터장은 도가 개최하는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바이오엑스포, 유기농엑스포 등 성공개최의 숨은 주역인 자원봉사자들이 이번 2016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에서도 아름다운 열정과 봉사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하게 될 것 이라며 대회의 성공 개최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2016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 은 9월 2일부터 9월 9일까지 7일간 청주체육관 등 청주시 일원에서 60개국 2,100여명의 전 세계 무예종목별 고수들이 국가대항으로 실력을 겨루는 세계 종합 무예올림픽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충북도자회복지협-충북하나센터-가온누리

지역 맞춤 전문재능봉사단 추진

업무협약 지역사회복지 증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상호 협력

6월 21일 협약을 맺은 심의보 회장(왼쪽), 최태호 이사장(오른쪽).

충청북도자원봉사협의회(회장 심의보), 충북하나센터(센터장 심의보), 세상의중심 가온누리(대표 이강원)의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전문재능 봉사단 조직 및 활동에 따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이 6월 21일 충북중합자원봉사센터에서 관계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지속가능한 네트워크 관계형성을 구축하고, 상호간의 신뢰 및 성실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뜻을 같이 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전문성 지속성을 갖춘 새로운 사회복지 자원봉사 체하다 임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봉사단사업 활성화에도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충청북도자원봉사협의회 심의보 회장은 세상의중심 가온누리와 지역사회복지 증진과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교류를 도모하겠다. 라고 하였다.

세상의중심 가온누리 최태호 이사장은 충북사회복지협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복지가 활비전제 성장하고 지역 내 자원봉사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길 바란다. 라고 하였다.

충북 휴먼네트워크사업 활성화

멘토링프로그램 협력기관 7곳과 협 약 실무자 간담회

충북사회복지협의회(회장 심의보)와 도내 멘토링 프로그램 협력기관 7개소는 휴먼네트워크사업의 지역의 확산과 활성화 도모 의 일환으로 6월 21일 충북중합사회복지센터 303호에서 휴먼네트워크 업무협약 및 실무자 간담회 를 개최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총괄 협력기관 7개소 중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사람들(대표 박종희), 충북장애인재활교회(대표 지선아), 충주열린학교(정건숙), 충청북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대표 전찬근), 함께사는우리(대표 박연순) 이와 5개소 멘토링 수행기관과 임가협이사장 김행아외2명 한국장애인보호협회충지회(대표 최난나), 청주재오플마음대표 배성희) 2개소와 간담회를 진행하여 마무리하였다.

제의 이번 휴먼네트워크 업무협약으로 충북사회복지협의회는 멘토링 수행기관 5개소에 사업비를 지원하게 한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멘토링 프로그램 사업의 개선방안을 논의, 사업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며 이로 인해 멘토링 협력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 지역 내 상호교류 증대를 기대하리라 본다.

충북사회복지협의회와 도내 멘토링 프로그램 협력기관 7개소는 21일 충북중합사회복지센터에서 휴먼네트워크 업무협약 및 실무자 간담회 를 개최했다.

충주시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으뜸'

시 수안 보 수회마을 최우수
신천면 도덕마을 우수상 쾌거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충주시와 수안보 수회마을.

7월 5일 열린 제3회 충청북도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충주시의 수안보 수회마을이 최우수상, 신천면 도덕마을이 우수상을 차지했다.

옥천군 한국석공연예에 열린 행복마을 콘테스트는 지역 주민의 자율적인 마을개발 우수사례를 발굴해 시상하는 대회이다.

주민들이 직접 시설과 자 원 성장의 역량을 심화 그쳐시키고 마을의 스토리 만들, 권리, 환경 등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실시되고 있다.

경 관 환 경, 체 험 소 득, 문화 복 지, 협력 가꾸는 농촌운동 등 4개의 마을분야와 시 군 분 야, 읍 면 분 야 등 6개 분야의 최우수 마을을 선정했다.

충주시는 마을 단합기 시 군 분야 최우수상, 문 화 복 지 마을분야에서 수안보면 수회마을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경 관 환 경 마을분야에서 신천면 도덕마을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시는 지난 2012년부터 읍면 동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했던 과정 및 심사를 받표해 최우수상을 거머쥐다.

또 수회마을은 연극과 마술분야의 인적자원을 활용해 생활마을, 아이들의 연극활동 등 다양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해 호평을 받았다.

도덕마을은 나루로 마을을 주민 스스로 가꾸고 다듬어 아름다운 마을을 만든 것은 물론, 마을인재 기를 통해 주민 화합과 단결을 이끌었던 것이 종기 평가에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시 군 분야와 수회마을은 오는 8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펼쳐지는 제3회 전국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 충청북도를 대표해 참가하게 된다.

전국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입상할 경우 시상금과 정부포상 및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음성군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취약계층 가정 찾아 불편사항 처리

음성군은 7월 11일부터 취약계층 가정을 직접 방문해 생활민원을 해결해 주는 ok! 수리수리!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하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의 생활민원 기동처리를 운영한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정책팀 공무원 2명, 기간제 1명으로 구성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홀몸노인 등을 대상으로 전 구 콘 센 트 수 전 교체, 하수구 막힘 등과 같은 각종 생활편리사항 처리를 계획이다.

생활불편 신고는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클센터(043-871-3650)로는 전 읍 면 복지팀으로 분리, 신청하면 기동처리반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취약계층의 생활불편 민원을 노스텔으로 신속하게 계리해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현장행정을 펼칠 계획 이라며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조기 정착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괴산군 "민관협력 복지사각해소"

읍면 지역사회보장협 출범

괴산군은 7월 5일 군청 회의실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발대식과 복지 위보봉 교육을 했다.

군은 이날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60명을 위촉했다.

복지 허브화 전담체계 추진방향과 역할 교육, 한후 사업추진방향 등 간담회도 가졌다.

협의체 위원들은 복지사각지대에 있거나,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이웃을 찾아 보호하는 일을 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읍면 협의체 운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조기정착, 주민의 신뢰와 화합, 나눔 분위 화산에 힘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군은 지난해 3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를 개정해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충북사회복지협의회(회장 심의보)는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도모

충북사회복지협의회(회장 심의보)는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도모를 위해 충북중합자원봉사센터 203호에서 도내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은 청주시자원봉사센터 하선민 사업국장이 삶의 새로운 가치 만 주제로 2시간 교육을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연령층의 도내 자원봉사자 30명이 참석하여 높은 참석률을 보였다.

교육에 참석한 이상분 자원봉사자는 오랫동안 봉사활동은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교육은 처음 하신데, 이번 교육을 통해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기회가 있다면 참여하고 싶다 는 소감을 밝혔다.

충북사회복지신문 광고 게재 안내

충북사회복지신문은 사회복지기관 및 관련단체, 시민단체, 병원, 학교,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일반시민 등 전국으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이슈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싶은 분은 적극적으로 충북사회복지신문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면	크 기	배색	금액(원)
1면	4단 (360mm×138mm)	컬러	300,000
	제호 옆 돌출 (67mm×33mm) (3개월)	컬러	100,000
2면~7면	4단 (360mm×138mm)	흑백	150,000
8면	4단 (360mm×138mm)	컬러	200,000

게재 개월 및 기타 상황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문 의 충북사회복지협의회 한아름 대리 (T.043-234-0841)

지역난방공사 학대피해 1억원 지원

굿네이버스와 치 료 협 약 학대아동에 심리검사 등 제공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굿네이버스와 함께 학대피해 아동들의 지속적이고 원만한 치료를 위한 협약을 6월 3일 체결했다.

본 협약을 통해 학대피해아동들의 치료비 지원은 물론 치료심리 개발 보수해 심리프로그램 발간한 아동들이 건강한 본인기에서 감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간 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랑의 치료비 사업을 통해 한해 약 100명의 피해대 아동들이 지속적인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사랑의 치료비 캠페인의 일환으로 6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굿 네 이 버 스 홈 페 이 지 (www.goodneighbors.kr)에서 온라인모금활동을 함께 추진, 대국민 참여를 유도하여 11월에는 아동학대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오프라인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부모 및 상인들의 의식변화로 아동학대가 줄어들고, 학대 받은 아이들은 적절한 치료를 받아 희과 마음에 상처가 없는 밝은 아이들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며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행복에너지 만는 사회공헌 비전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적극적인 나눔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굿네이버스와 함께 학대피해 아동들의 지속적이고 원만한 치료를 위한 협약을 6월 3일 체결했다.

그림으로 희망 잇는 '나눔그리기 공모전'

7월 29일까지 신청접수

교육나눔기업 희망이음이 제1회 희망을 잇는 나눔그리기 공모전 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희망이음 사랑공헌활동 중 하나로 나눔과 봉사 예관련 그림 공모전을 통해 아이들이 예술적 재능을 후원하고, 나눔과 봉사의 취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희망이음이 주최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에는 (사)한국미술협회, 기네스 관매업체 행복키즈토기 후원한다.

공모전은 전국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저학년(초등1~10세)과 고학년(11세~13세)으로 나눠 사상을 제출하다.

공모전 접수는 7월 29일까지이며, 희 망 이 음 홈 페 이 지 (http://hopeum.kr/)에서 참가 신청서를 다운받아 자성한 뒤 작품과 함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수상작은 총 30작품이 선정대상 2, 최우수상 4, 우수상 6, 장려상 8 등 되며, 희망이음 권재현 대표, (사)한국미술협회 조경훈 이사장 명의의 상장과 상금, 상품 등이 차등 지급된다.

수상자는 8월 중순 경 희망이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9월 초 시상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수상자 은 추후 전 시 홈 보 등에 활용될 계획이다.

충청북도공무원 휴일 자원봉사 활성화

6월까지 1377명 참여
휴일이용 소외계층 돌봄

청주동부소방서 대원들이 농촌인력지원을 하는 모습.

소외계층 지원과 공무원의 봉사정신 함양을 통해 함께하는 충북행복한 도민 을 실현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충청북도 공무원 자원봉사 참여실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휴일을에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공무원자원봉사는 6월까지 총 85회에 걸쳐 1,377명이 참여하였고, 자원봉사 대상에게 자원봉사자는 3것만 7,990명, 51개 사회복지시설 507명이며, 행히 장애인복지시설의 물품생산 봉사에 15회에 걸쳐 280명이 참가했다. 도에서 여럽 추진하고 있는 생활자치원봉사는 전체 봉사활동의 63%로, 충청북도 공직자 자원봉사단이 주최 주관하는 충북 운동으로 지속 확산해 나아갈 방침이다.

원봉사는 생산적 분야 위주로 추진되고 있다.

충청북도는 공무원의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 직원의 연 1회 이상 참여를 목표로 부서단위 참여를 유도하고, 자원봉사 참여실적을 공무원교육 이수실적으로 반영한고 있으며, 앞으로도 함께하는 충북 운동으로 지속 확산해 나아갈 방침이다.

충북 취약계층 주택기초소방시설 2232개 설치

2007년부터 독거노인 세대 등 설치 재산인명피해 막아

한국소방안전협회 충북지부 회원들(소안회)이 지난 10년간 도내 취약계층에 주택기초소방시설을 지원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6일 소안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인천화재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 및 위험물안전관리자, 소방기술자 등 13명의 회원으로 결성됐다.

이후 2007년부터 최근까지 소년소녀가정, 독거노인 세대 등 2007가구에 소방기 안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기초소방시설 2232개를 설치했다.

한국소방안전협회 충북지부에 기부된 소방시설을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한국소방안전협회 직원들이 비번일이나 휴일을 이용해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설치해 온 것이다. 주택용소방시설은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이고 화재예방 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신규 주택은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주택도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소안회 김진구 회장은 앞으로도도민 안전의 자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활동을 지속 전개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한국소방안전협회 충북지부 회원들(소안회)이 화재취약대상 소방기구 설치운동을 활동다.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단 운영

제천시 복지수요 파악 공 긔

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공동위원장 이근규, 신용민)는 6월 29일 오전 11시 제천시보건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제1차 모니터링단 회의 를 개최하였다.

모니터링단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9조(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에 법하드고거로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평가 를 통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 이행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성 강화 및 지역사회보장성의 집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 운영된다.

모니터링단다은 시무했의의위원장 이재원)은 공공 민 간 주 민 의 협력을 통하여 복지수요를 파악하고 서비스 기획 및 공급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자치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에 있다.

농협은행 사회공헌 1위 5년 연속 대기록 달성

NH농협은행은 충북본부(본부장 김태진)는 농협은행이 시공은행 가운데 5년 연속 사회공헌 1위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고 6일 밝혔다.

전국은행연합회가 지난달 27일 공시한 2015년 사회공헌활동 보고서 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지난해 1위를 기록했다. 농협은행은 2011년부터 5년째 사회공헌지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농협은행의 사회공헌 활동비 지출내용은 지 역 사 회 공 익 57억원 학 술 교 육 20억원 서 민 금융 부문 136억원 예 술 나 눔 활 100억원 환 경 2억원 해 외 지원 1억원 등이다. 이번 노력에 힘입어 농협은행은 2015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 에 선정돼 금융기관 최초로 38번째 교육기부대상을 수상했다. 또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발전 기여기관에 수여하는 예술나무 후원기업상 을 3년 연속 수상했다.

노후자금 6억원 가장 이상적

직장인 651명 대상 설 문 조 사 현실기능여부 부정적 많아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노후자금으로 평균 6억 1000만원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 인터넷, 모바일포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벼룩시장구인구직 직장인 651명을 대상으로 은퇴를 대비해 준비하고 있느냐 고 질문한 결과 51.1%가 준비 후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 고 답했으며 필요한 자금으로는 6억 1000만원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났다.

직장인 10명 중 5명은 현재 은퇴를 대비해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실은 조사 대상 중 절반 이상은 은퇴를 고려하는 나이에 원하는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30대, 40대가 다른 연령에 비해 은퇴를 준비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많았으며 20대의 경우 은퇴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건의를 준비를 한다고 답한 응답자보다 많아 현재 삶의 문제로 다음으로 55세 이상 60세 미만(26.9%), 50세 이상 55세 미만(14.5%), 45세 이상 50세 미만(9.1%), 70세 이상 (8.6%)이 뒤를 이었다.

현재한 은퇴를 위해 가장 필요한 조건으로는 건강 (47.3%)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근소한 차이로 재무상태 (46.2%)가 뒤를 이었으며 인간관계 (3.2%), 대외활동 (2.2%), 가족과의 관계 (1.1%)라고 답한 응답자는 소수에 불과했다.

또한 의료비 (34.9%)를 은퇴 후 가장 목돈이 많이 들어가는 항목으로 선택했고 이어 생활비 (30.1%), 자녀결혼비용 (29.6%) 등의 순이었다. 나이가 들면 큰돈이 들어가는 경제적 힘겹과 비급여 의료비 등이 발생하는 것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한편, 은퇴하면 어떤 느낌이 드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중 56.5%가 슬프고 두렵고 인생의 종점 혹은 마지막이라는 부정적인 생각 이 든다고 답했으며 수고롭 내 인생에 대한 보상, 휴식, 새로운 시작 등의 긍정적인 생각 이 든다고 답한 응답자는 43.5%로 은퇴에 대해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출처 : 벼룩시장 구인구직>

"대학생 지식 · 재능 나눠요"

충북도교육청, 대학생 동봄교실 봉사단 운영

충청북도교육청은 학교 밖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자원을 발굴교실에 적극 활용하는 대학생 봄봄교실 봉사단 운영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대학생 봉사단은 교육부에서 선발성 있는 교육대 사범대 등을 보조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생이 지식, 재능, 동아리 특색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봄봄교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1~2명년 봄봄교실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예체능 프로그램 및 독려 놀이문화 활성화, 3~6학년 연계형 봄봄교실에 참여하는 하생들에게는 자기주도 활동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간 플랫시간의 교육활동을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1학기, 2학기, 여 름 겨울 방학 등 원임대학생 등아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희망하는 학교의 봄봄전담사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 원 운영 토록 했다.

1기로 참가한 금천초 봄봄교실의 충북대학교 해인보우 팀은 4주 동안 놀이문화 형성 지원 프로그램을 이끌었다. 프로그램은 에 로 벽 만들기 골 라 스 덱브를 통해 교실 무미기 방 을 통 며 보 심기 지 원 보 를 통해 미래의 심 만들기 등으로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다양한 놀이 체험을 통해 자신의 재능과 흥미를 찾게 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충청북도 공직자 휴일 봉사 활동 참여 저조

충북도교육청 "학교 단위 참여 유도"

충청북도교육청 공직자 휴일 봉사 활동 참여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충청북도교육청 공직자 휴일 봉사 활동 참여 실적은 지난 2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전체 공직자 1,000명 중 평균 3.5명 참여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전체 공직자 1,000명 중 평균 4.5명 참여한 것에 비해 1명 정도 줄어든 것이다.

충청북도교육청 공직자 휴일 봉사 활동 참여 실적은 지난 2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전체 공직자 1,000명 중 평균 3.5명 참여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전체 공직자 1,000명 중 평균 4.5명 참여한 것에 비해 1명 정도 줄어든 것이다.

충청북도교육청 공직자 휴일 봉사 활동 참여 실적은 지난 2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전체 공직자 1,000명 중 평균 3.5명 참여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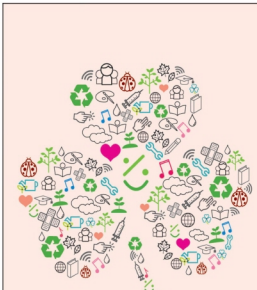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전체 공직자 1,000명 중 평균 4.5명 참여한 것에 비해 1명 정도 줄어든 것이다.

충청북도교육청 공직자 휴일 봉사 활동 참여 실적은 지난 2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전체 공직자 1,000명 중 평균 3.5명 참여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전체 공직자 1,000명 중 평균 4.5명 참여한 것에 비해 1명 정도 줄어든 것이다.

나눔수록 행복해 집니다.

지역사회봉사단으로 참여해 주세요!



1. 봉사단 모집대상
   - 1004지역사회봉사단 : 재능을 기지고 있는 봉사단체나 동아리(연 4회 이상 활동 가능)
   - 베이비부머 봉사단 : 1955~1963년생의 특정 연령대를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월 2회 이상 활동 가능)
2. 봉사단 기준
   - 5인 이상(VMS 가입)으로 구성되고 연 4회 이상 활동 가능 단체
3. 봉사활동 분야

구 분	내 용
기술 · 기능	디자인, 벽화봉사, 전기 · 가스점검, 집수리, 도배, 기능전수 등
상담 · 정보	법률 및 제무상담, 아동 · 청소년 등 상담(멘토링), 취업, 창업 등 각종상담 및 정보제공
운영 · 지원	재활도우미봉사, 재가돌상 · 방문봉사, 행사, 프로그램보조봉사 등
문화 · 예술	음악, 연극, 무용전행 등 공연봉사, 지역문화축제, 지역주민 대상 행사진행 등
교육 · 학습	나눔 · 경제교육, 장애인 · 저소득계층 위한 수학, 영어, 국어, 한문 등 학습지도
노력 · 행정	사회복지기관 · 시설 · 단체노력봉사, 청소봉사, 행정 및 사무지원 등
보건 · 의료	무료진료, 호스피스, 간병, 위문, 운동보조, 병원입무보조 등
교통 · 환경	교통정리, 자량이동봉사, 지역환경 개선, 재활용 및 환경관련 캠페인 봉사 등

4. 지역사회봉사단 목적
   - 사회복지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국민복지증진
   - 전문봉사인력 참여를 통한 자원봉사 서비스 질 제고
   - 사회복지기관 · 시설 · 단체 등의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전문성 · 지속성을 갖춘 새로운 사회복지 자원봉사 패러다임 구축
5. 봉사단 혜택
   - 활동비(재료비 및 필요물품 구입비) 일부 지원
   -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정
   - 다양한 문화공연 초청(VMS, 복지넷)
   - 참여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및 홍보 등
   - 봉사단복 홍보
6. 신청 및 문의
   - 충북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부 남형주 코디네이터
     전 화 043) 234-0840
     홈페이지 www.cwin.or.kr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우리사회 안전점수 10점 만점에 4.74점"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도민 344명 대상 안전의식 조사

남성 4.97점 · 여성 4.70점… 연령 낮을수록 점수 낮아

충북도민이 느끼는 우리사회의 안전점수가 10점 만점에 4.74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는 지난 5월18일부터 6월26일까지 충북도민 344명을 대상으로 한 안전의식 조사 결과 충북도민이 느끼는 우리사회의 안전점수는 10점 만점에 4.74점에 불과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은 4.97점, 여성은 4.70점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 우리사회의 안전이 불안하다고 밝혔다.

특히 안전점수는 20대 4.26점, 30대 4.47점, 40대 4.43점, 50대 5.13점, 60대 이상은 5.69점으로 연령이 낮아질수록 안전점수가 낮아졌다.

과거10년 전보다 현재의 안전상태 변화를 묻는 질문에서는 다소 하락 이라고 답한 비율이 전체의 35.5%로 가장 높았다. 매우하락했다는 답변도 7.2%나 됐으며 동일하다 는 25.0%, 개선됐다 는 답변은 29.1%에 그쳤다.

안전사회를 만드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안전의식 및 안전문화 부재(25.2%) 를 꼽았다. 안전행동 및 안전활동 부족 18.9%, 관리지출 및 지도층의 무관심 16.9%, 관련 법령 및 제도 미비 15.4% 등이다.

우리의 잚못된 안전의식 중 가장 큰 문제점은 안전불감증(27.4%) 으로 조사됐다.

이어 뢰린행위 서두르는 습관 21.8%, 저당주의 의식 21.2%, 눈앞의 이익 추구 20.3%, 자기주의 성향 8.7%, 기타 1% 0.6% 등이다.

우리사회의 안전 확보를 위한 규범 규 정은 보통수준(47.9%) 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우리사회가 규범 규 정을 잘 지키느는 질문에 을 지키거나 잘 지키는 편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1% 이라는 답이 절반가까이 됐다.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이유는 당사자들의 무관심(34.9%) 때문이라고 응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장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장은 한 해 평균 500여명이 넘는 인원이 안전사고로 싸슴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 이라며 안전을 외 고 가치로 여기고 안전에 대한 관심과 의식개혁이 절실히 필요한 때 라고 말했다.

청주 은세계봉사단 거리청소

청주가경노인복지관

청주가경노인복지관과 청춘권의 은세계봉사단에서 거리정화 활동을 6월 22일 1시간동안 가경동 일대를 30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 했다.

청주가경노인복지관의 은세계봉사단은 복지관이 계관하면서 발촉된 봉사단으로 노년기의 경험과 지혜를 살린 봉사로 사회참여의 기회제공하고, 노년기 자아성취감 증진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재 5개의 활동을 하고 계시며, 안내봉사, 말만전해달봉사, 공연봉사, 도시관봉사, 원예봉사를 하고 있다.

은세계봉사단은 거리정화 활동은 1년에 두 번씩 진행되는 활동으로 가까이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의견으로 진행되었다.

은세계봉사단의 원예원예장은 이번에 뚯깊은 행사에 동원하게 되어 너무 보람되고, 가경동 지역주민들이 깨끗한 마을을 만들 수 있도록 계속 흥보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다.

청주가경노인복지관의 은세계봉사단은 거리정화 활동 및 봉감이 봉사, 노인시설 뚱탐공연 봉사 등 다양한 분야의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청주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평가 대상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주 최 공익활동 분야서 쾌거

청주시니어클럽(관장 박종주)은 지난 6월 30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주최로 개최된 2015년 노인 사회활동(노인일자리) 평가결 평가대회 에서 공익활동 분야에서 재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이번 평가는 2015년도 노인 사회활동(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 하는 전국 민 관 총 1,192개 수행기관(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등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수립에서 부터 목표달성까지 사업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해 자체평가, 지자체 확인 평가, 관할 시군구 교차현장 평가, 중앙평가위원회 현장 평가 등의 여러 단계의 검증 단계를 거친 결과 청주시니어클럽이 9개으로 최고의 점수를 받아 이번 평가대회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청주시니어클럽은 청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지원기관으로 2002년에 개소해 2016년 현재 11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626명의 어르신들이 여동하여고 보람있게 노인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독거노인 건강한 여름나기 행사

청주내덕노인복지관-신한생명 보험설계사 보양식 전달

청주내덕노인복지관(관장 각연스님)은 신한생명 보험설계사들로 구성된 Big Dream 봉사단과 함께 독거어르신들 위한 시원한 여름나기 나눔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청주지역 신한생명 3개 지점 임직원 20여명이 참여하여 청원구 가주 독거어르신 30가정을 직접 방문해 여름철 무더위 대비 쉼캠과 보양식 등 생필품을 전달하고, 복지관 경로식당에서 김식 봉사활동을 진행하였다.

자원봉사자 리더로 참여한 안경환 공 시청주지점장은 여름을 앞둔 독거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정성을 담아 선물을 마련했다 며 마음에 삶아가는 나눔 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신한생명 빅드림 봉사단은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2012년에 발족하여 매해 임직원 많이 참가하진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독거어르신의 건강과 안전 위한 지원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오송종합사회복지관 청주사회교육협 등 2곳과 평생교육사업 지원 MOU

오송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수한)사무은 6월 28일(화) 오후 15시에 청주지역사회교육협의회(회장 오윤심)와 오송도시농업지원센터(대표 김연홍)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청주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서는 20이명 이상의 강사를 보유하고 있어 오송종합사회복지관의 평생교육사업에 대해서 상호 힘조기로 업무협약을 한다.

협약식에서 오송종합사회복지관이수한관장은 지역주민들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라고 약속하였다.

전천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수상자 배출

이유진시설명덕씨 바리스타 직종서 각각 은상 장려상

진천군장애인복지관(관장 한명수)의 대표로 출전한 이유진, 시설명덕씨가 충북장애인기능경기대회 바리스타 직종에서 각각 은상과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이유진(여)병변 27세), 시설명(지적장애 34세)씨는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개최된 충주에서 열린 2016년 충북장애인기능경기대회 바리스타 직종에서 충북 전역에서 모인 장애인 바리스타 선수 21명과 경쟁하여 은상과 장려상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진천군장애인복지관은 작년 직업훈련생 5명을 대상으로 5월부터 9월 총 12회 바리스타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번 수상자들은 복지관 바리스타 훈련과정을 통해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특히, 이번 대회를 앞두고 지난 한 달 동안 진천 바리스타의 정계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집밥없이 노력하였다고 한다.

한명수 관장은 우리 복지관의 바리스타 교육과정 훈련생이 이렇게 큰 무대에서 실력을 발휘되어 매우 기쁘다. 게 그 동안의 고된 훈련을 참견디고 참여하여 멋진 결과까지 있어서 훈련생들에게 매우 감사하다. 고 전했다.

충주 남자 청소년쉼터 업무협약

충주 · 제천 · 음성 청소년복지센터와 위기청소년 돕기로

충주시 남자 청소년쉼터는 충주 제 천 음 성 지역 통소년당해지센터들과 위기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월 충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시작으로 6월에는 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음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충북북부 아동보호 전문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위기 청소년들이 더 이상 어두운 그늘이 아닌 밝고 건강한 성장을 돕고 싶다 고 밝혔다.

업무협약은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협력 위기 청소년의 심리 및 성장을 위 한 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위기청소년이 신체적 및 정서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충주시 남자 청소년쉼터 허경희 대표는 충주,제천,음성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충북북부 아동보호 전문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위기 청소년들이 더 이상 어두운 그늘이 아닌 밝고 건강한 성장을 돕고 싶다 고 밝혔다.

건강증진활동사업 통합캠프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정은영)에서는 장애인 300여명을 대상으로 2016년 건강증진활동사업 통합캠프를 7월 7일부터 8일까지 1박2일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캠프는 장애인에게 수영, 단체활동, 레크레이션, 체험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건강증진 및 사회성 발달 등을 통해 참가자에게 만족감을 주고 지역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통합캠프는 충북 북부권 4개 장애인복지관(충북, 단양, 제천, 음성)이 참여하여 그 의미가 한층 더해졌다.

코스콤IT 보조기구 지원 신청

충북보조기구센터 22일까지 모집

충청북도보조기구센터가 코스콤 후원으로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강동센터와 협력 코스콤IT 보조기구 지원 사업 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컴퓨터 접근 향상을 통해 학습 및 취업, 정보교육 웹소, 보조공학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관라 인상의 교류기회 증대를 위해 필요한 보조기구를 무료 지원되고 있다.

컴퓨터 접근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보조기구로 한 손 키보드, 눈높이조절 책상, 팝업 키보드, 조이스틱 등 대체 마우스도 지원이 가능하며, 컴퓨터, 한스네, 독서확대기 등 컴퓨터 접근을 위한 보조기구로 한단되지 않은 품목은 제외된다.

서류신청 후 서류검사에 선정되면 현장장기를 통해 개인에게 적합한 보조기구를 확인 후 심사를 거쳐 지원업을 수 있다.

모집은 7월 11일 ~ 7월 22일까지이며, 충청북도 거주 등록 5세 이상 컴퓨터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신청가능하다. 충청북도보조기구센터 홈페이지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하여 서류를 구비 한 전자우편(cbat@daum.net) 또는 내방,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한울타리도서관 청소년 캠프

제천 신백아동복지관

제천 신백아동복지관 한울타리도서관은 오는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 지역 아동 청소년 60명과 함께 2016 건강보험 청소년 캠프를 활한 청소년수련원에서 진행한다.

이 사업은 다자녀와 한부모 가정 아동 청소년에게 공과 비한 을 제시하고 장부이 출산장려을 지원하고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모두 3개 지역(제천시, 강원도 원주시, 경기도 이천시)의 아동복지센터 지역아동센터의 추천을 받아 선발한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하생 150명이 참여한다.

다음이 드림잡다(Job多) 를 주제로 진로탐구 진문강사와 다매생 멘토들과 함께 진로탐구, 직업 콘서트, 인문학 퀴즈 골든벨, 나만의 스토리로 만나는 콘텐츠를 콘서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향후 사회 구성원으로서 올바른 인성 함양과 자신 감을 키운다.

복지관 쇠진 관장은 다동이 드림잡다(Job多) 캠프로 지역의 아동 청소년들에게는 다양한 진로 탐색을 통해 꿈과 비전을 제시하고 사회적으로는 건강보험과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또 오오도시 도모도 다양한 외부공모 사업과 연계해 지역 주민과 아동들에게 문 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맞춤형 보육' 격돌 이어 현안 '산너머 산'

"저출산 극복없이 미래 없다"…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 이행 주시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정강사항은 무엇일까. 이미 20대 국회 첫 임시국회에서 맞춤형 보육을 둘러싼 격돌을 벌인 복지위는 앞으로도 7개 전공개 달아 오늘 상임위로 넘어갈 일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기초연금 인상 등을 두고 여야 간 논쟁이 벌가리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미한 상황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주요 정책 현안 50개를 꼽았는데 이 중 사회복지분야 현안은 기초생활보장, 연금, 보험, 맞춤형보육, 장애등급제, 아동학대, 치매 보아 등 9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큰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착 및 제도 내실화에 집중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의 소득 재 산기 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논의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고용·복지 연계 강화 는 고용복지전담를 2017년까지 100개소 로 확대할 예정이며, 입주 가권 간 서비스 연계 결과 공유 등을 위 한 전산시스템을 개편하는 등 사업기반 확충 및 서비스 연계 강화 를 향후 과제로 삼았다.

근로장려금 급여체계 구축 및 지역자활센터 확충 의 경우 지활 장려금 폐지에 따른 대체 수급자의 지활근로 참여 유인 감소, 지활장려금 급여 혜택을 받는 지활근로 참여자 달가는 근로장려세제(EITC) 제도에서 배제되는 문제, 지활근로사업 참여자 수 감소 및 이에 따른 편중 예산 집행 실태 부진 문제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논의 지속 가능성

즙 면 등 복지제도와 의 정점으로도 비효율적 전달체계로 인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사회 보호 보험지 공급기조로 봤음 에서는 복잡해 한계가 있으므로 복지 확대도 제고 및 시민사회 대 해소 등 관 면 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기대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강화 과제로는 사 회 복지 시 설 및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질 평가업무를 위한 평가지표의 지속 발굴 사 회 서 비 스 이용자의 인권 및 보호, 서비스 선택권 강화 서비스 품질의 균등성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기반 마련을 위해 사회서비스 공통품질 기준 전자 바우처 부정수급 의심사례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통한 부정 수급 사전방지 강화 방안 요구됐다.

나눔문화 확산 의 경우 종교법제화의 다툼이 최근 한향국면에 접어든 나눔 정보와 국민인식에 반동의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영국자선위원회(CAF)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부순위는 2012년 45위, 2014년 60위, 2015년 61위로 떨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해야 한다고 했다. 2013년 11월 입법된 나눔기본법안은 19대 국회 입기만 표로 폐기됐다.

장애등급제 는 현재 활동 지원 등 의학적 장애 등급판으로 적정성 판단이 어려운 분야의 심사기준에 적합기준으로 활용되는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또 장애 등록 후 장애인 달사자가 상황해야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스템으로 장애인의 인 지 적 판리 취 한계로 사각지대 및 자원배분의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을 반아났다.

이에 따라 장애등급을 전면폐지에 따른 시책 혼스 및 급사자 불편 최소화 등의 복작을 최첨를 위해 1 건도제로 나누어 점진적 개편을 추진하자 있다. 1단계로 현물지원 서비스에 대해 장애등급제등을 배제하고, 2단계로 소득지원, 감 면 할 인 등 의학적 증 경 등 을 대체할 수 있는 별도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장애인 활동을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해 장애등급에 따른 휘일전 서비스 대신 욕구, 기능변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에 지원되는, 장애등록 후 서비스별로 찾아다니며 신청해야 했던 공급자 위주의 제공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향후 과제로는 장기요양 수준, 장애인 관련 단체 간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고, 장애등급제 개편이 자칫 일는는 진행을 위한 점검과 아울러 법령 개정, 전산시스템 개편, 행정 인프라 정비 등 필저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장애인 소득보장 확대 가 선결된 이유는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6.8%에 불과하고, 장애인 가구 월평균 소득은 202만 5000원으로 2014년으로 전국 가구 소득 41.5만2000원의 53.8%에 그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대한 최대는 중증장애인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해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현실화 필요성과 경증장애인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해 장애수당의 현실화를 강화하자, 현행 부가급여는 월 2 만원 수준으로 장애도 인한 추가비용이 월 24만2000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고, 장애수당은 월 2 40만 수준으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월 132,5000원에 비해 낮다.

아동학대 관련 인력 등 인프라 확대 필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개선 분야의 향후 과제로는 방문요양인등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야간순찰방문서비스 제공 및 개인별 맞춤형 상시활동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복권기 지출금고금 기본계획 이행 점검 도주요정책 현안에 배치지 않았다.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되고 인구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노동력 부족, 성장률 하락, 사회보장 부담 증가 등의 문제는 주준히 제기되어 왔다. 가임기 여성 1명당 한군출생수는 1.3명밖에 되고, 노인인구 비율은 2015년 13.1%에서 2030년 24.3%, 2050년 37.4%로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지난 1 2차 기본계획 추진에도 불구하고 낮은 출산율과 급격한 고령화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지금까지의 정책적 대응은 미흡하다는 평가다. 따라서 제3차 기본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한 관리를 강화하고, 저출산 고령 현재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 및 전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방지 대책 과 관련, 범정부 차원에서 아동학대 관련 대책이 추진되어 왔으나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아 우려가 큰 상황이다. 따라서 교육, 홍보 등 아동학대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피해 발생 시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 치 료 하는 등 전 과정에 걸쳐 여러 대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관련제도 증액 및 인력 증원 등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실정이다.

입양가족의 인권 및 권리보호 의 경우은 해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 및 입양절차 전반에서 국가책임 강화를 위 한 법 제 도 개선,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경제적 지원 및 사회적 인식개선, 국내외 입양인 사회서비스 강화 등이 강조됐다.

국가지배관리제계 확립 과 관련, 현재 4968000명의 치매노인이 앓고있는데 10년안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제2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 따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치매고위험군 관리강화, 치매안심마을 지정, 치매친화문화 공연, 치매유니트 설치 확대, 치매상담콜센터가족상담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과제로는 치매환자를 전담하는 병원, 요양시설 및 재가서비스 등의 시설인프라 확충이 필요하고, 치매환자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치매전문교육 수료자 이력관리제계 구축 및 치매전문가 치매전문교육 과정 개발이 필요하다. 또 치매환자 가족의 부양부담 감 완화 및 정서적 지원을 위해 치매환자 가족 상담 확대, 자조모임 운영 등의 지원강화도 요구된다.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체계 구축 은 노인일자리의 양적 질적 향상, 참여노인 활동수당 증액, 참여노인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로 요약된다.

노인일자리는 공급에 비해 수요가 더 많아 2015년의 경우 대기자 수가 관6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된다. 또 노인일자리 유형 중 공공분야 일자리가 참여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일자리의 내용도 단순노무직이 많은 실정이므로 노인일자리의 질된 및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지원적인 양립의 민간분야 일자리를 확대해야는 노력이 필요하다. 2015년에 등록한 3829000명의 일자리 중 80% 에 이르는 3029500명 일자리가 공공분야이다.

공공분야 노인일자리 참여노인의 활동수당이 2004년부터 현재까지 2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어 그간의 물가 및 경제적 변화를 감안할 때 참여노인의 참여의지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제계 개선 도 현안사항이다. 장기요양 수급자의 욕구와 일치되지 못함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서비스 집적 제도 관련에서 장기요양기관은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수급자 와 방문요양 종합센터를 가족의 고통과 수급자의 심신기능 상태에 맞는 급여이용 유도 필요 현 재 장기요양기관 중 인력기준에 90%이상 일고 소규모 시설이 많아 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필요 수 급 자 를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의 간인할 때 장애자 위해 장사의 지원 강화 및 방문요양서비스 시간 확대 등 가족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인학대 방지 대책 과 관련, 노인학대 신고건수가 2008년 5254건에서 2014년 17556건으로 증가함으로써 정점이 절 수 에 이른 상황이다.

향후 과제로는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시설 내 학대 문제에 대한 실태 점검 및 대책 마련 필요 , 노인전문 시설장기요양 신고교육 강화 및 전문교육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필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위주로 원 해노인전문센터 확충 등이 필요한 실정이다.

믿을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과제

최근 드러난 어린이 맞춤형 보육 도 정책 현안에 올랐는데, 향후 과제로 어 린 이 집 종일반 이용대상 선정 시 합리적인 기준 설정 및 요 종 일 반 자격기준 완화하는 현장 지적에 공무원들의 업무부담 경감 보 호 자 및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복지 증 진 및 어린이 집 수 급 조 에 따른 보육서스템 개편 및 지역에 대한 대책 필요 등이 꼽혔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도 과제다. 민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보건 만족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과제는 향후 과제로는 어용수 요소에는 시설 확충 시 지정 보육수요 고려 필요, 민간 어린이집의 매 입 전 환 과제, 지역의 보육 수요를 고려한 환워지에 위주로 원 치원입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발 견된 어린이집 유행병 보 보 국공립 26829개소 6.2%), 사설보육업체 141478개소(33.3%), 법 인 단 체 등 65347개소 (20.7%), 민간 1만4626개소(34.4%), 가정 2만2374개소(51.9%), 보육 협동 155개소(0.4%), 직장 785개소(1.8%) 등 42만5317개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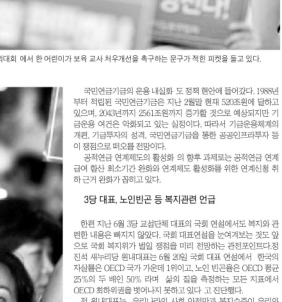
기초연금제도 내실화 의 경우 현재 노인 중 30%인이 국민연금을 받고 통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낮은 소득인데도 낮은 기초연금과 이중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현 장치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현행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현재 노인인구의 70%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되어야 하나 실제 수급률은 약 67% 수준으로서 법정 수급률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기초연금 노 후소득 보장 효과를 현재보다 기초연금액을 조정함으로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며, 현재 실시되는 부부가입자 감액 및 소득수준에 따른 감액제도의 경우 부정의 요보는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연금액을 높이거나 현재 실시 중인 감액제도를 폐지 하는 경우 상당한 재정이 소요되어 따라 재원조달 가능성, 미래세대 부담, 형평성 등이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사각지대 해소 는 지난 1월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2150만1000명 중 납부예외자 450만6400명(21.0%), 장기체납자 1090만3000명(51%) 등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데따서 저임금 및 임 시 일 용 직 근로자 등 국민연금 가입률이 저조한 취약계층 근로 자의 복지를 위한 방안 마련 과 관련, 범정부 차원에서 이동하며 취업하는 근로자 등 사각지대 해소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맞춤형보육 제도개선 및 시행연기 촉구 2차 결의대회 에서 한 어린이가 보육 교사 차우개선을 촉구하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맞춤형보육 제도개선 및 시행연기 촉구 2차 결의대회 에 참석한 참가자가 LED촛불 점등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내실화 도 정책 현안에 들어갔다. 1988년부터 적립된 국민연금기금은 지난 2월말 현재 520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2043년까지 2561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금운용 수익은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금운용체계의 개편, 기금투자의 공공성, 국민연금기금을 통한 공공인프라투자 등 이 정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공적연금 연계제도의 활성화 의 향후 과제로는 공적연금 연계 급여 현상 최소기간 완화와 연계제도 활성화를 위한 연계신청 취 하 근거 완화가 강조되고 있다.

3당 대표 노인빈곤 등 복지관련 언급

한편 지난 6월 3일 교섭단체 대표의 국회 연설에서도 복지와 관련한 내용은 빠지지 않았다. 국회 대표연설을 눈여겨보는 것은 으로 국회 복지위가 발일 정책을 마리 현장에는 관련보안되다정 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한 국회 대표 연설에서 한국의 자살률은 OECD 국가 가운데 1위이고, 노인 빈곤률은 OECD 평균 25.5% 두 배인 50% 라며 삶의 질을 측정하는 모든 지표에서 OECD 회원국들을 맞이나지 못하고 있다 고 진단했다.

정 원내대표는 우린 바라 사회 안전망과 복지수준이 우리의 경제수준이 비슷한 유럽 국가들에 비해 미비한 것은 사실 이라며 복지제원의 확충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마련돼야 하는데, 복지를 위해 세금을 어디에서 걷어나 더 거둬야 하는 가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선결되어야 한다 고 했다. 그는 또 복지정책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돕는 것인데 우리의 복지정책은 이런 취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 며 지금 나왔다고 있는 복지정책이 원래 취지 부합되지못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한 보육은 우리의 미래세대를 보살피고 키워나는 중요한 문제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인지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고 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월 21일 국회 대표 연설에서 복지로서 지원에도 불구하고 빈곤률 또는 사회지표 못하는 계층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인간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 삶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고 말했다.

김 대표는 최저 생는 노인이 200만명에 달하고 일정 정도로 노인세대 절반이상이 빈곤과 소외에 시달리고 있다 며 기본연금법을 개정해 하여 소득하위 70%의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차등없이 지급하고, 2018년에는 3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노인일자리 참여수당 역시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 며 노인빈곤 해결을 위해 정부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 대표는 저출산 극복은 국가의 관심이 없던 중대한 문제로 저출산 해결 없이는 경제 정책도 무용지물 이라며 보육의 국가책임은 저출산 극복의 첫걸음으로 누리과정 하나도 국가가 책임지지 못한다면, 저출산 극복은 불가능하다 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한국형 복지시대로 가기위한 논의 테 이블이 필요하다 고 말했는 데 있어는 정도로 복지를 늘려가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보편적으 사회적 공론과 합의의 과정을 만들어 가야 한다 고 밝혔다.

안 대표는 지방분 - 지역적 에서 중앙급 - 중복지 로 가야 한다 며 교육 재원가 확대강화 가지고 복지수준과 세부부담수준을 다 타야 한다 고 말했다.

이 같이 3당 대표는 복지와 관련한 내용을 대표연설에서 빼놓지 않고 언급했다. 그런데 복지가 중요하을 인식하는 것도 반증이다.

<출처 : 복지저널/정의택>

칼럼 Column

복지국가란?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심 의 보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회장

한국의 20대 총선은 20년 만에 3당 국회를, 16년 만에 여소야대라는 의의의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총선이 끝나는 한국 민주주의 정치발전에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모든 주권은 국민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번 국민은 여소야대의 의원을 만들어 야당이 어느 사설 소통의 벽 한국과 한국인을 위한 훌륭한 정책과 통치를 수행해 나아가도록 요구한 것일 수도 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를 이루는 구성원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여석의 일기로서 지역구 246인과 비례 대표 54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회의원은 국회 구성원으로 법령을 제정, 비준, 개정 또는 폐지하고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 하며 국정 운영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 행사에 참여한다. 또한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강제위임이 금지된 오늘날의 대의 민주주의 제도에서 국회의원은 자신을 뽑아준 선거구민의 의사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민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국민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그러기에 특권도 이어야하다. 헌행범인 경우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으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한 때는 현행범이 아닐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하며,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특권이 있다. 높은 연봉과 함께 후원금 모금 등 여러 국가 지원 및 보좌관, 비서, 인턴 등이 주어진다.

여소야대와 3당의 국회원장을 안게 된 한국정치는 우선 두 가지의 과제가 주어졌다. 이 과제는 한국 민주주의 정치발전에 좋은 지렛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하나는 대통령에 대한 불신풍토의 변화를 가져와 야 한다는 과제이고, 다른 하나는 국회원의 공천제도에 대한 반성이다. 적어도 타협과 협력을 통한 국정 운영으로 지도력을 발휘하는 대통령이기를 기대하는 것과, 공천에 있어 국민이 아닌 정당파벌에 의한 공천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는 교훈이다. 총선을 계기로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한국 정치인들의 반성과 결단은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진일보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조화로운 사회를 지향하며 힘 국회의 방향

인간의 생존을 위한 사회적 욕구를 사회가 봉종하던 확립을 지고 이를 충족시켜 주고자 하는 제도, 시책 또는 실제를 우리는 사회복지라 말한다. 보호자 없는 순위 의해 어 모두가 행동하며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리라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오히려 평등은 현재당하는 사례가 많고 보이지 않는는 은 아직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는 그 자체 사회보다는 이러한 조정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자본주의의 이러한 모순을 타파하고자 등장한 사회주의 도한 이미 세계 도처에서 그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자본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면 이제 인류는 어디서 그 가능성을 찾아야 할 것인가?

생활고로 일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생존권이 문제가 논점을 장사하는 현존에서는 보편적 복지에 반대하는 사회적 불만을 번졸한다. 값자기 무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궁금해진다. 과연 무리 사람가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 것인가? 복지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것인가? 사회복지주의는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그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해 보자는 일종의 수정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나 수정자본주의는 가난 같이 사회의 약자나 소외된 자를 살펴보자는 목표는 같으나 그 방법과 수준은 이 다르다. 사회주의는 평등을 요구하지만 자본주의는 차등을 요구한다.

사회복지주의는 최저한도의 생활수준까지는 평등을, 그 이상은 차등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 차등이 적절한 선을 설정한다는 것은 결코 용이하지 않다. 이를 위한 변수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어려운 그 제정신을 영원히 찾지 못합니다도 모른다. 자본주의는 자유를 지향하고 사회주의는 평등을 지향한다. 이러한 상호 모순개념이라 할 수 있는 성장과 분배, 자유와 평등이 조화를 이룰 때 희망을 향유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사회가 사회복지주의로 하나의 공동체가 될 때 가능해 질 것이다.

지역사회의 산업발전과 함께 복지의 지역사회화도 강조되고 있다.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은 지방정부가 국민생활의 세세한 영역에까지 직접 영향력에 밀워하기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주민을 또한 더 이상 국가에 모든 것을 기대지 않고 지혜로우로 경제발전과 함께 복지의 사회적 통합을 추구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방교육재정 부족으로 부담하는 타든 누리과정으로부터 시작된 복지사회의 논의가 오늘의 자상급식는 전면 이전기까지 끝없이 이어지고, 최하도 리한 남녀 일을 극복 할 방안정부가 복지는 생기다.

생가해 보면 지방정부로서의 복지사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사생 지 요구의 필요를 최대 대한 충족시키려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사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지역사회가 복지의 실제를 가지는 것이다. 어떤의 지방정부의 정책은 지역사회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2016 국회가 해결해야 할 사회복지 과제

보육이야말로 2016 국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일 수 있다. 유보통합으로 관련 주체 갈이해결과 정부, 사회단체단체의 지혜적 보육료 지원으로 완전한 무상교육,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실질적 대책교사제도로 보육시설 인정제도, 보육시설에의 건강진단, 상담 및 심리치료 제제해결, 민간어린이집의 법인화 및 국공립수준으로 서비스 상향 등이 그 과제이다.

이들 복지는 열악한다. 학 습 교 재 교 구 무상지원 및 저출산 극복 아동수당제도 도입, 지역사회 이웃돌봄서비스제공사업 확대 사업, 이웃보호제도 확립 및 이웃심리치료센터 설치, 어린이 방임아동발견서비스 확대 사업, 해방기 이웃 보호제계구축을 위한 방과 후 활동지원센터 설치 등은 중요한 과제이다.

청소년복지는 너무 소외되어 있다. 일반은 초 중 고 등학 교 전환경 의무급식전면 실시, 중고등학생 등 희 복 교복지원 으로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청소년복지사업의 확충 및 청소년상담센터가능 확대,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상담 등 전문적 지원, 대학등록금 하자금대출과 저소득층 복지장학금 지원 확충 등은 현실정되어야 한다.

장애인복지의 확충이다. 장애인인권확보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및 상담센터설치,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소득보장, 활동보조서비스 확충, 장애인 재활치료시스템 구축 및 복지전문제공자 확충, 위 - 뉴 (universal design)을 통한 무장애지역사회 구현, 직업전문교육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중심 장애인 취업률 제고도 중요하다.

노인복지는 절비되어야 한다. 노인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의 확대 및 강화, 저소득층, 장기요양등급외자 등에 야노인을 위한 노인보호정책 확충, 노인의 기본권의 확산 및 다양한 기회 제공, 노인복지관의 서비스 확충 및 인원의 운영체제 확립(위탁기간 연장)도 필요하다. 경로당의 종합학교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지원센터화 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초생활보장은 필요성이다. 실질적으로 부양받지 못하는 빈곤층의 기초보장수급자 선정, 차상위계층에 대한 입자릐 및 경제적 지원 확충, 저소득층 입자리제공을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기계, 시설심한통 등 및 노인돌봄 기본은행으로 봉사의 선순환제도 확립, 저소득층을 위한 돌봄센터 운영이 있어야 한다.

주거복지도 중요한 복지의 한 영역이다. 주거권 확보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확충,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비 보조제도 실시, 세입자의 주거권 보장 등은 매우 긴요하다. 나아가 노인부양가정에 대한 주거비 지원과,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위한 리 관련 등 주거복지사업도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보건의료의 영역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강화 및 확충, 건생사 배치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시행, 치료, 중증 등 성인병 예방센터 설치, 아토피 등 난치성질환 구조체계 확립, 그리고 공공의료시스템의 인프라로 뇌혈통 보건지소 본소의 설치도 숙원 과제이다.

지활은 미래사회의 중요한 복지영역의 하나이다. 지활사업 지원에 관한 제도적 정비 및 확충을 비롯하여, 지역지활센터 장여자에 대한 교육 지원, 청년활의 자립적 경제활동을 위한 청년지원센터 신설, 재활공동체에 대한 실질적 운영지원, 그리고 중리적 생산과 소비를 위한 온 - 오프라인 판매지원은 지활복지를 위해서 시급하다.

복지전달체계의 정비도 필요하다. 시화복지시설 운영의 공공적 역할 강화, 공공복지기관의 전문인력 충원 및 휴먼서비스 입지 보충, 지일에드 빈틈없는 종합복지서비스 인전망 구축, 사회복지서비스 접지제고 및 사회복지 기업 확충 및 지원, 그리고 다문화가정과 탈북자가정 등 소외계층의 정책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재 정 적 뒷받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 기초지원정책에서의 자주적 운영체계를 수립하고, 복지정책 생산을 위한 Think Tank 강화, 복지정장부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및 개발형 제 심사, 그리고 사회보장비 예산비중의 10% 상향 조정을 해야 한다. 복지사비스 영역 간 복지정책 격차 해소도 중요한 과제이다.

복지국가 그랜드 서밋 - 사람 중심의 경제.

복지국가로 가는 진통으로서의 보편적 복지

원년심임을 반면은 누리과정, 노인일자리문제 등 은당 사회적 불만일이 본출하고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옥시시설 등 인권유린의 문제가 뉴스를 장식한다.

복지정책의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두 가지가 있다. 국민 모두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는 형평성이 높은 반면 효율성이 낮고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이에 비해 필요한 사람에게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택적 복지는 형평은은 낮으나 효율성이 높고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결국 복지국가의 근본사상은 자유방임주의나 개인주의와는 거리가 멀 뿐 아니라 공산주의와도 배치된다. 다시 말해 이념을 보기이 양극단에서 중앙으로 기꺼워질수록 복지국가의 이데올로기는 점차 두텁번 부각된다. 이를 Jacon Vine는 자유 없는 국가 사비스와 국가서비스 없는 자유사이의 중간노선의 모색이라고 보고 있다.

일찍이 Marshall은 복지를 물질적 수단과 비물질적 목표의 복합체라고 정의했다. 복지가 부와 행복 사이를 있는 측의 어느 한지점에 존재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복지는 인간생활의 이상적 상태와 그러한 이상의 실현을 위한 실천적 활동을 동시에 포괄하고 있는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인간의 이상이란 미래지향적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보단의 좀밟하여 현재보다 더 바람직스럽고 나은 상태로의 이행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20대 국회가 지향해야 할 복지국가란 무엇인가? 무엇을 실천으로 삼아야 할 것인가?

첫째, 국가인식 즉 평화의 보장이다. 국가 간의 무력충돌의 가능성을 극소화시켜 야 하며 더욱 바람직스러운 상태는 전쟁에 대한 대비가 불필요하도록 만드는 것이 복지국가의 상임요소로 포함된다. 여사상 동아시아에는 권력이동(power shift)이 일었음 때 한반도는 반드시 위기가 도래했다. 북한이 급속도로 핵능력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위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 전망된다. 국회는 국민이 불안을 덜기 위해 북한이 올 직임을 확뒤히 감시하고 놀란 경계태세를 유지하는 등 최선을 다해야 한다.

둘째, 경제제도로서의 수정자본주의 또는 혼합경제체제의 운용이다. 복지국가의 제도 전해에서는 자본과 노동사이의 균형을 모색하거나 반부의 격차를 감소시키며, 고용확대를 촉진시키고, 저임금도 해소시키는 등 여러 기지 경제정책의 실시를 통해 국가는 인간복리를 시장경제의 운용에 개입하는 복지자본주의의 실행이 추구된다. 미국의 블룸버그 뉴스는 4 13 총선 결과에 대한 한국을 둘러싼 대외 여건이 나무나 좋지 않다며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될 우려마저 있다고 경고했다. 이 와 정 모두 차분히 국정을 이끌어나갈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

셋째, 정치제도로서의 민주주의의 구현이다. 정치적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이유는 개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국가의 국민 개인생활에 대한 개입 한대가 자발 성 용되거나 오용되고 오히 발생되는 개인의 자유침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개인의 자유보장이란 함께이 복지국가의 지속요건임이 분명한 것은 인간의 고유 기본욕구를 생존과 자활로 보고 있는 Harry Lesser 의 주장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넷째, 국민의 복지에 대한 국가의 막중한 책임의 수행이다. 그럼 사회문제로 부터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 개개인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일에 관심을 표명하는 이상으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국가가 지킬 필요 비보스 복지국가가 될 수는 것이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심장드라를 보이고 있는 국가인보 문제나 분배 문제, 나아가 사회위주체론의 인권 문제나 삶의 질 문제는 모두 복지국가보 가는 진통이라 생각되다. 진통기의 20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성공적인 국회가 되기를 기원한다.

법률복지의 새 장을 여는

법률홈닥터 사업 안내

법률홈닥터제도는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법조인이 충북사회복지협의회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비롯한 시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서비스 제공대상	도움 받을수 있는 분야	법률서비스 제공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과 법교육, 구조안전과 법률문서작성 등 소송 수임 없이 가능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초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지역주민,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관계 및 임금, 채권 및 채무, 상속 및 유언,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 및 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입니다.	민동준 변호사 (법무부 인권구조과)가 담당합니다.

서비스 신청은

시 간 : 월~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공휴일 제외)
전 화 : 043)238-0843 / 이메일 : dsmin@citizen.seoul.kr
사무실 :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콘합사회복지센터 300호, 법률홈닥터

법무부 · 충청북도 ·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보편적 복지(평등)와 선택적 복지(형평).

이 달의 법률상식

집합건물의 하자보수 책임

민동준 변호사

Q. 저는 다세대 주택 1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몇 십 년부터 최근 집 천장에 물이 새어 벽지에 심각하게 다 물에 젖어 곰팡한 상황입니다.
건축업자를 불러 조사해본 결과 하였으나 현재는 저의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옥집의 원인은 누수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데 어떡해야 합니까?

A. 다세대 주택과 같은 집합건물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누수의 원인이 건물의 전유부분에서 발생하였는지, 공용부분에서 발생하였는지를 확정하여야 합니다.

누수의 원인이 건물의 전유부분에서 발생했 경우그 전유부분은 의무자 대신 건물의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누수 원인자가 그 지분비율에 따라 그 수선비 등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누수가 옥집을 통과해 지나가는 온수배관에서 발생한 경우 다는 옥집의 전유부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옥집 세입자 내지는 소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14조에 따라 배관을 보수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민법 제750조 1항에 따라 누수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인권기초과(충북사회복지협의회))

복지정보 제공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여성, 아동, 청소년 분야 관리종진 제도개선 과제 공모
1) 공모기간 : 7.13.~8.19.
2) 공모과제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ㅎㅏ이 및 지역제한 없음
3) 제출서류 : 제안서 1부
4) 접수처 : 전자우편(childwelfare@childfund.or.kr) 접수
5) 발표일자 : 9.30
6) 공모주제 :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여성, 아동, 청소년 분야의 권익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 비정상적표출적인 관련, 제도, 법령 등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 기타 권익 보호/증진 관련 새로운 시책 추진이 요구되는 사항 등
7) 시상내역
– 등급 : 우수과제 / 건수 : 10 / 시상내용 : 위원장 상장, 온누리상품권 20만원
– 등급 : 경토과제 / 건수 : 20 / 시상내용 : 시민단체장 상장, 온누리상품권 10만원
– 등급 : 권심과제 / 건수 : 20 / 시상내용 : 온누리상품권 5만원

아이돌과 미래
상상불신과 함께하는 주니어건설아카데미 4기 교육 참여기관 모집
1) 사업대상 : 서울소재 사회복지기관 소속 초등4~6학년 10명
– 1개 기관당 최소 9명 – 최대 12명까지 신청 가능
2) 사업기간 : 8월~10월, 주중(월~금), 7회기, 주1회 교육
3) 선정기준
– 교육 수행 가능 기관(장애인된 모집, 체험학습 및 교육 참수 참석 등)
– 교육실소 및 기자재 확보 가능 기관
4) 지원내용
– 건설교육 컨텐츠 : 총7회차로 구성된 키리웹팀, 1개 팀티당 약 9개로 소요
* 7회 중 1회 현장체험학습 및 수료식
– 학생용 교재, 교사용 매뉴얼, 교구재(만들기 키트) 제공
– 건설교육 진행 강사 파견(주강사 1인, 보조강사 1인)
– 교육참여 아동 대상 소정의 교육운영비 지원(간식비)
5) 접수안내
– 접수기간 : 7.13.~7.22
– 접수방법 : 붙임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annacoldkiN@naver.com)송부
– 대상확정 : 8.11 발표 예정

예체능 장학생 지원 2016 빈드림트리드림캠퍼스 대학생 드림멘토 모집
* 빈드림트리 사업 / 사회복지법인 아이돌과미래가 사회복지실용모금회 지원으로 예체능 분야에 재능있는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을 지원하는 사업
1) 사업명 : 빈드림트리 연합진로캠프 1박2일 드림멘토스
2) 모집대상 : 예체능 계열(음악, 미술, 체육) 분야 진공 대학생
3) 활동내용
– 8. 9에 진행되는 연합진로 캠프에 드림멘토로써 관련 분야 중고등학생 인솔
– 진로멘토링 프로그램에 파트너로써 참여
4) 드림멘토 특혜
– 자원봉사시간 인정(VMS)
– 드림멘토 확인서 발급(아이돌과미래)
5) 지원방법
– 접수기간 : 7.22까지
– 접수방법 : 첨부된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 (lsjbobo@kidolturne.or.kr)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시설 여성종사자와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 mom힘(맘한번 힘내다)
1) 참가대상 : 사회복지시설 여성 종사자와 자녀(6세 – 10세)
2) 장 소 : 충남 부여 일대
3) 참가인원 : 총 480명(기수별 160명, 여성종사자 80명, 자녀 80명)
4) 참가일정
– 1기(8.24~8.26) : 영남권, 제주도 거주자
– 2기(8.31~9.2) : 충청권, 호남권 거주자
– 3기(9.21~9.23) : 수도권, 강원도 거주자
5) 모집기간 : 7.4~7.27, 1830명자
6) 신청방법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www.welfare.net) 공지사항을 통해 온라인 신청
7) 선정기준 : 대상자격 충족 여부 및 참여 동기, 지역 안배 등
※ 참가자 확정 발표 : 8.3, 협회 홈페이지 공지

충북NGO센터
비영리단체 기초 회계 계 무 실무교육
1) 교육대상 : NGO회계 담당자 및 관심있는 활동가 외에
2) 진행일시 : 7.19 1300~1800
3) 교육장소 : 충북NGO센터 대회의실
4) 교육문의 : 043–273–0321 (교육정책팀 김규리 간사)
5) 참가비 : 1만원(농협은행 301–0115–2102–61 사단법인 충북사민재단)
6) 교육내용 : 회계의 방향성, 비영리회계와 영리회계, 복식부기의 기초, 장부와 보고서, 비영리조직의 세무 등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불합리한 지자체 자치법규 개선과제의 일환으로 청주시 노인복지관 이용자 제한 중 제한근거가 미흡한 정신질환자 를 삭제하고자 함.
– 정신질환의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고 실효성이 없으며, 자칫 정신장애인의 활동을 제한해 장애인 차별소지가 있어 행위 제한 (제6조 제3항4호)의 공공정신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등으로 불합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노인복지관 이용자 제한 규정 중 정신질환자 삭제(안 제6조제2호)
– 2호 : 정신질환자 → 삭제
3) 소요예산 : 없음
4) 예고기간 : 7.15~8.4(20일간)

남북하나재단
제2차 북한이탈주민 창업동 운영지원 대상자 모집 안내 공고
1) 창업동 운영지원자격(신고포설경비 위주지원)
2)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2016년 제2차 북한이탈주민 창업동 운영지원 모집안내 참조
3)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 신청기간 : 7.8~7.22
– 접수방법 : 우편(등기) 및 방문접수
마감당일 소인까지 인정

지역사회봉사단

"어려운 이웃에 쾌적한 보금자리"

충북사회복지협의회 민들레베이비부머봉사단이 도내 봉사활동을 펼쳤다.

민들레베이비부머봉사단
기초수급 가구 대상 도배봉사

충북사회복지협의회(회장 심의보) 소속 민들레베이비부머봉사단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가구를 대상으로 도배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봉사단 김종성 단장은 비록 힘든 여건이지만 퇴근을 다채 봉사활동을 하는 봉사단원들을 보면 지칠 겨를이 없고 더욱 열심히 하게 다 고 전했다.

어디서든 Talk! Talk! 터진다
경 박사와 함께하는 생활영어 Daily English

식당에서 주문하기①

이번에는 식사에 관한 즉 식당에서(At the restaurant) 쓰는 기본영어 및 주문할 때 자주 오가는 표현을 익혀봅시다.

경경호 (전 충청대학교 교수)

1. Miss(waitress), May I have a menu, please?
아가씨, 메뉴 좀 볼 수 있을까요?
2. Here you are.
여기 있습니다.
3. What kind of dish do you like?
어떤 음식을 좋아하십니까?
4. What's your favorite dish?
당신이 좋아하는 요리(음식) 무엇입니까?
5. Let's eat out today!
오늘은 외식합시다!
6. I'd like to make reservation a table for five, please.
5인용 식탁 하나를 예약하고 싶습니다.
7. Which do you like better korean dish or chinese dish?
한식을 좋아합니까, 중식을 좋아합니까?
8. Hot food isn't for me.
나는 매운 음식은 못 먹어요.
9. Which do you like better a continental breakfast or an American breakfast?
콘티넨탈 아침식사를 좋아하십니까, 아메리칸 아침식사를 좋아합니까?
* 식사는 전식 요리 식사요리만 말해 정중식사 중 제일 부정관사를 붙인다.
- 콘티넨탈 브렉퍼스트: 간단한 아침식사
- 아메리칸 브렉퍼스트: 적식을 실한 아침식사
10. Would you like to order now?
지금 주문하시겠습니까?
11. May I take your order?
주문을 받을까요?
12. Would you recommand me tasty food?
저에게 맛있는 음식을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13. What's good here?
여기 무엇이 맛있습니까?
14. What's special dish here?
여기 특별 요리가 무엇입니까?
15. Roasted duck is delicious.
오리구이는 맛있습니다.

「경 박사와 함께하는 생활영어」는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인생이모작"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사들의 생활영어 능력 향상을 위해 무료로 연재되고 있습니다.
☞ 경 박사와 함께하는 생활영어는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개인복지(영)의회 홈페이지(www.cwin.or.kr) 영욕 · 개인공연 · Daily English 클릭)

복 / 지 / 만 / 평

동물농장

이창신 www.bokmani.com

자원봉사자 모집

청주시

행정업무보조
관리센터 :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 1. 1 – 12. 31
전화번호 : 043–234–0841

장애인일자리 카페 바리스타 보조
관리센터 : (사)충북지체장애인협회
청주시지회
활동기간 : 1. 18 – 12. 31
전화번호 : 043–273–6848

노래마을 장난감도서관 장난감세척
관리센터 :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활동기간 : 1. 01 – 12. 31
전화번호 : 043–237–8774

2016 장애인시개선교육 연구모임 자원봉사
관리센터 : 충북장애인재활협회
활동기간 : 3. 01 – 11. 30
전화번호 : 070–4366–3607

충북생. 고등학생 1:1학습멘토링
관리센터 : 구세군 꿈꾸는씨앗 지역아동센터
활동기간 : 2. 01 – 8. 31
전화번호 : 043–254–6314

공인중개관련 재능기부 및 강의
관리센터 : 청주정신건강센터
활동기간 : 2. 15 – 12. 31
전화번호 : 043–285–0102

2016 온라인홍보단 1기
관리센터 : 어린이재단 충북지여본부
활동기간 : 2. 08 – 12. 31
전화번호 : 043–256–4493

제천시

도서실 도서 정리
관리센터 :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활동기간 : 1. 11 – 12. 31
전화번호 : 043–640–8472

충주시

재가장애인 주거환경개선
관리센터 :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요청인원 : 4명
활동기간 : 7. 14 – 12. 31
전화번호 : 043–856–1100

지역사회봉사단 모집
관리센터 :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요청인원 : 0명
활동기간 : 연중
전화번호 : 043–234–0840–2

* 자료출처 : www.vms.or.kr